

예탁금, 새해부터 2.8兆 ‘쑥’... “코스피 펀더멘털 주목해야”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57조583억 코스피, 전 거래일비 1.79%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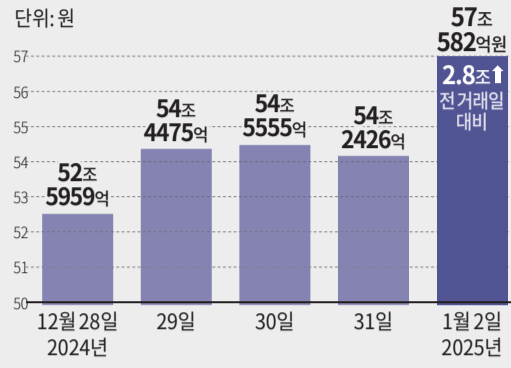
계엄사태 등 밸류에이션 최저점 근접 상반기 강세 염두... 비중확대 유효

새해 첫 거래일부터 투자자예탁금이 하루 만에 약 3조원 급증했다. 대내외 리스크와 탄핵 정국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국내 코스피가 1월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7조583억원으로 전 거래일 54조2427억원 대비 약 2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검은 월요일’ 직후였던 지난해 8월 6일 58조9618억원 이후 최대치다. 투자자 예탁금은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주식투자 열기의 가능자 역할을 한다. 연말이었던 지난달 일평균 투자자예탁금도 약 52조3913억원에 그쳤으나

최근 투자자예탁금 추이



새해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전날 코스피도 전 거래일 대비 1.79% 상승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날도 1.91%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코스피의 6개월 누적 수익률은 -14.2%, 12개월 누적 수익률은 -9.6%를 기록하고 있다. 8월을 기점으로 코스피의 급락세가 유지됐고,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보이

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희 흥국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는 단기적인 증시 성과 부진보다는 중장기적인 증시 성과 부진과 강하게 연관된다”며 “이러한 중장기적인 증시 성과 부진과 이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역대 1월 증시의 경험은 기술적으로 올해 1월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 연구원은 “매해 1월 증시의 성과는 대체로 당시 시점 영업이익 사이클의 추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었다”며 “현재 영업이익의 사이클의 경우, 이익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짙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1월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영향은 단기에 종료됐다. 결국 중요조건 여전히 펀더멘털”이라며 “코스피 수익률에 정치 리스크의 영향력은 미미하며 펀더멘털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부분은 코스피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출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12월 수출 증가율이 선방한 만

큼 코스피의 펀더멘털, 실적 불안심리 등이 진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614억달러(90조2825억원)를 기록했으며, 2024년 수출 역시 6838억달러(1005조5962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22년 6836억달러(1005조3021억원)를 경신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초에 2025년 수익률을 생각하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계엄사태, 수출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억눌리며 밸류에이션이 최저점에 근접한 코스피가 손익비의 관점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며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지난해 4분기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2600선 이하의 경우, 2025년 상반기 강세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제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주, 실적개선·밸류업으로 올해 전망도 ‘장밋빛’

KRX증권지수, 전년비 14%가량 ↑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 수익 늘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매력도 ↑

지난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증권주가 올해도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밸류업 참여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RX증권지수는 지난해보다 14%가량 올랐다. 코스피가 약 7% 감소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개별증권사로 보면 NH투자증권(32.58%)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금융투자(21.96%), 키움증권(17.69%), 삼성증권(12.47%), 미래에셋증권(8.64%) 등이 뒤를 이었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미지.

증권주의 이같은 상승세는 실적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데다 시장 금리 인하로 인해 운용 수익도 증가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6.3% 증가한 1조1269억원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97.7%, 59.3% 급증한 1조1163억원, 1조180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한국금융투자는 54%

증가한 1조2634억원, NH투자증권은 26.8% 늘어난 920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며 향후 3년간 ROE 15%, 주주환원을 30%, PBR 1배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보통주 1주당 7500원을 지급하는 결산배당을 결정해 배당을 크게 확대했다. 배당금 총액은 전년(881억원)보다 2배 증가한 2057억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까지 ROE를 10% 이상, 주주환원 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어 2030년까지 자사주를 1억주 이상 소각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3월 약 13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증권사 중 다섯 번째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ROE) 12% 확보 ▲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올해도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권주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수익구조에 따른 주주환원정책 이행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레이딩 손익 기여도 및 투자은행(IB)부문 실적 회복세를 보유한 증권사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기반 높은 배당매력도를 보유할 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 수익률·샤프지수 1위”

꾸준한 자금 유입, 원화투자 최적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가 2년 연속 수익률·샤프지수 1위를 달성했다.

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는 전년 말 퇴직연금 온라인 클래스 기준 전체 빈티지에서 1년 수익률 1위에 올랐다. 해당 펀드 시리즈의 1년 수익률은 19.34%~28.37%, 6개월 수익률은 8.25%~11.10%로 집계됐다. 2023년에도 1년 수익률 17.17%~22.9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는 2022년 10월 출시해 총 7개 빈티지 라인업(▲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이 있으며, 같은 해 11월 퇴직연금 온라인 클래스(C-Re) 판매를 개시했다.

한투운용은 측은 “이 시리즈의 설정액은 전년 말 기준 2655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2116억원 늘어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꾸준한 ‘자금 유입’을 강조했다.

해당 펀드 시리즈는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인 ‘샤프지수’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시리즈 평균 샤프지수(1년 기준)는 2.62~2.75로 국내 TDF 시리즈 중 가장 높았다. 한투운용 측은 “같은 기간 각 빈티지별 샤프지수 2위는 1.72~2.36, 국내 TDF 전체 시리즈 평균 샤프지수는 1.3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해당 펀드 시리즈에 운용 철학을 적용하기 위해 장기자산배분 곡선(LTCMA), 동적자산배분 곡선(Glide Path),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형 등 자체적으로 방법론을 구현했다”며 “특히 원화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TDF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은 해외주식에 환노출 투자, 채권은 국내 채권으로 투자하는 크로스매칭(Cross Matching) 전략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 펀드’를 100% 편입한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BF1이 전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상품 중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방법론 개발을 맡은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당사 운용 프로세스의 강점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뿐만 아니라, 밸런스(BF)펀드, OCIO펀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실시

공매도 전산화 방안 사전 준비 무차입공매도 여부 탐지 가능

향후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오는 3월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의 사전 준비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법인이다.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법인으로 거래발생 개연성이 있는 법인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법인의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

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하게 된다.

추후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